

# 2010년 디지털전자산업 발전비전



산업자원부 디지털전자산업과  
윤상직 과장

디지털가전산업은 2010경 250억불(세계전체 : 20%) 수출을 달성하여 세계 제2위의 수출국가로 부상하고, Post-PC산업은 165억불을 달성하여 세계 제3위 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장기 산업비전을 제시하였다.

### 〈산업별 수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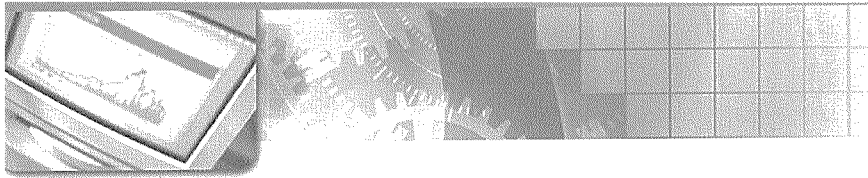
(단위 : 억불, %)

구 분	01년 수출	05년 전망	10년 전망	연평균성장율
디지털가전	19억불 (5.1%)	100억불 (13%)	250억불 (20%)	33%
Post PC	0.4억불 (0.25%)	35억불 (8%)	165억불 (15%)	95%

※ (%)는 세계시장 점유율임

산업자원부는 상기의 산업발전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산업인프라로 첫째, 가전, PC,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산업기반이 구축되어 디지털컨버전스 신제품 개발에 비교우위가 있다. 둘째, 디지털방송 및 초고속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디지털가전제품 및 Post-PC제품의 내수수요가 급속히 신장되면서 해외시장 개척이 용이하다. 셋째, 메모리, TFT-LCD 등 주요 핵심부품의 생산규모가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넷째, IT분야 기술력이 뛰어난 벤처기업이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 등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점을 들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상기의 산업환경속에서 오늘 제시된 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반도체, LCD 등에 이어 디지털가전, Post- PC 등도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 디지털가전산업 발전전략 세부과제

### 차세대 원천기술 및 핵심부품 국산화

현재 추진중인 디지털 데이터 방송기술 등 총 10개 과제에 4,500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Ubiquitous 환경지원 디지털 응용기술 단말기 등 향후 디지털 컨버전스화 및 홈네트워크 핵심기술을 매년 2개 이상 개발한다.

아울러, 업계수요를 감안하여 Top-down 방식으로 공통핵심과제를 매년 5개씩 선정하고, 전자부품 연구원을 주관으로 차세대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연구기관 등과 공동기술세미나 및 기술인력 상호교류 등을 확대한다.

### 국제 표준화 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

「디지털 가전 표준화 통합포럼」을 구성('03년)하여 기존의 PLC 등 5개 표준화 포럼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중국과 디지털 지상파 TV방송방식, 대화형 데이터 방송기술, 디지털 라디오 방송기술 등의 국제 표준협력을 제고하고, PLC 국제표준화 포럼총회(6월), 위치기반서비스 기술표준화 포럼(12월) 등을 추진한다.

### 해외마케팅의 전략적 추진 및 내수기반 구축

“한국전자전(10월)”을 가칭 ‘한국디지털전자대전’(Korea Digital Appliance Exhibition)로 변경하고 매년 5~10억원 지원하고, 세계 일류화 상품발굴을('02년) 15개에서('05년) 50개로 확대하여 Cebit, Comdex, CES 등 유명 전문전시회 참가시 임차료

(현행 대기업은 해외 전시비용(임차료)의 50%, 중소기업은 70% 지원) 및 해외 인증규격 획득 필요 경비 지원 확대한다.

수출계약 전액에 대하여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하며, KOTRA에서 해외입찰정보의 수집을 통해 업계에 제공하고, 내수기반의 확대를 위하여 프로그래션 TV 및 PDP TV 특소세율의 폐지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디지털 CATV, DAB 국내표준의 조기 제정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며, 지상파 HDTV 방송시간을 조기 확대한다.

### 디지털 가전산업의 인프라 확충

무선네트워크 설계인력 양성센터(주성대)를 '05년까지 5개로 확대하고 시스템S/W, SoC 설계인력 양성사업을 중점추진하며, 전자부품연구원을 통해 인도, 러시아 등의 S/W 설계인력 활용방안 강구하여, 천안영상미디어 사업화 센터,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사업 등 지역산업진흥사업('02~'06)에 총 1,216억원(정부 : 762억원, 민간 : 454억원)을 투입하여 TIC 및 지역거점대학 등과 연계하여 국가 IT분야 집적효과 극대화 한다.

현재, 전자부품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전자 시험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부품 신뢰성 평가센터」의 신뢰성 평가품목을('01) 11개에서('05) 50개로 확대하여 현재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산하에 DVR 1개 협의회만 구성·운영하던 것을 STB, MP3P, 홈시어터 등에 관한 협의회를 신규로 구성(7월중)하여 업체간 정보교류 및 전략적 제휴 활성화 추진한다.

또한, 제3차 전자산업동향예보 연례세미나를 개최하고 전자정보지원센터(전자부품연구원)와 해외 시장조사기관과 제휴를 확대한다.

디지털가전 HS Code 분류체계 개선을 위해 현

제 아날로그 제품과 구별이 되어 있지 않으며 복합 제품의 Code 분류가 없는 품목(D-TV ↔ 일반 C-TV, MP3P ↔ 카세트 레코더, DVDP ↔ VCR, D-STB ↔ 일반 STB 등)에 대하여 업계, 연구기관 공동으로 금년중 마무리한다.

## ◆ Post-PC산업 발전전략 세부과제

### 경쟁력있는 핵심·원천기술의 개발

Processor급 SoC, 내장형 OS 최적화 등 디지털 가전형 Post-PC 플랫폼 기술개발('01~'04)에 총 492억원(정부 : 280억원, 민간 : 212억원)을 투입하고, 상기 기술개발과 연동하여 차세대 Post-PC Mobile 컴퓨팅·통신기술, 유·무선 네트워크 융합기술 등에 매년 1개 이상 과제를 Top-down방식으로 추진한다.

CPU, 디스플레이, 통신모듈, 2차 전지, 커넥터, Bluetooth, DAB, GPS, 음성·필기체 인식, 초소형 동영상 카메라 등 핵심부품을 수요기업 및 부품-소재-장비업체와 함께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으로 일괄개발한다.

### 전략적 제휴로 시너지 효과 제고 및 위험경감

「Post-PC 산업 포럼」구성(7월중)하여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기술개발 방향 설정, 정책과제 도출, 표준화 및 부품 공용화, EMS 도입, 공동마케팅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 한다.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에 의한 기술개발 과제를 우대지원하고 SoC, 모듈 및 칩셋부품 등

가격비중, 공용화, 공동개발 효과가 큰 품목에 대하여 「Post-PC 산업 포럼」을 통하여 우선지원한다.

Post-PC 전문 EMS업체의 육성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역량을 R&D와 마케팅에 집중시키고, 多品種 소량생산에 대응한 유연한 생산체제를 확보하고, 전자부품연구원 등 지원기관을 통하여 EMS 업체의 신뢰성, 품질, 생산기술력을 집중 배양하며 금번 6월에 설립예정인 EMS 산업협의회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국내 수요창출 및 해외시장 개척

신제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시 CDMA2000 1x급 이상을 지원하는 휴대형 정보단말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아울러, 콘텐츠 이용촉진을 위해 무선 인터넷 이용요금 대폭 인하, 교육 및 정보화사업, 우편·경찰 등 특수공공 서비스 수요창출 방안 강구한다.

### Post-PC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자부품연구원에 설립된 「Post-PC 지원센터」( '01.5)과 「Post-PC 산업포럼」과 연계하여 수요지향형 기술 및 플랫폼 확보, 시험 및 평가장비 구축과 함께 향후 5년간 전문인력 1,000명 이상 양성하고, Post-PC 관련 기술 및 표준동향 모니터링을 위하여 「Post-PC 산업포럼」내에 특허청, 기술표준원 공무원 및 산·학·연 전문가로 전문가그룹을 구성, 대만 IA연맹(2000.2월 창설) 등과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하기로 하고, 소비자 수요동향 예보제를 실시하여 업계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비즈니스 모델정립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